

국책(國策)건축사업과 설계경기 및 발주제도의 개선

Ameliorating the System of Design Competition and Ordering in Government Policy Projects

Column

현 정부의 선거공약인 행정수도 계획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좌절된 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또한 11곳의 혁신도시를 충남을 제외한 각도에 만들어 지역균형을 꾀하며, 이곳에 국가 및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 한다. 향후 10년에 걸쳐 이전 건축될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190여개에 달하는 굵직한 사옥들은 행정도시의 건축과 함께 향후 전무할 정도의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 외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경쟁적으로 내 놓는 문화 프로젝트 중 최근에 발표한 서울의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나 경기도의 한류우드는 건축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다.

우리는 건축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각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짧거나 긴 공사기간, 막대한 예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그리고 공연 레파토리 시스템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바 이는 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싫든 좋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러한 프로젝트가 어차피 진행된다면, 이는 건축사라면 누구나 수주하고 싶은 매력적이며 탐나는 프로젝트들인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극소수의 건축사만이 참여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대부분은 구경꾼의 신세를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에 있어 현행 건축설계경기 및 발주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케 하거나 또는 기술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을 하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며, 지명경쟁 입찰을 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소위 PQ제 요소가 적용된 것으로 대행사무소와 오랜 경력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결함에 대하여, 기술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기본성격이 다른 건축설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현상설계 응모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바, 이는 널리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좋은 설계 작품을 선정하고자하는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프리젠테이션만 강화되어 객관적 판단 및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다는 것 그리고 당선작과 실제 시공되는 건물이 전혀 다른 경우가 발생함에 있어 설계경기가 당선자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건의한 바 있다.

본 협회는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설계경기 및 발주방식에 대하여 설계경기를 통한 발주방식이 기본(원칙)이고 보조적으로 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것

둘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제도는 약간의 긍정적 요소도 없는 바 아니나 대부분 실적위주의 기준으로 부조리가 조장되고 진취적이며 실력 있는 젊은 신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셋째, 설계경기의 단계별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응모 시에 투입되는 과도한 비용을 절감하여 많은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1단계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2단계로 1단계 공모에서 채택된 소수의 건축사들에 한하여 본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제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

넷째, 설계경기는 주최 측이 사전에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 당선작의 설계변경 금지원칙을 확립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작가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 것.

다섯째, 설계경기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의 원칙을 확립할 것.

여섯째, 설계경기의 심사위원 선정도 건축심의제도와 연계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협회나 전문가 단체를 통한 캐비닛제도의 법제화 등 방법을 강구할 것, 즉 심사위원은 강의 행정 등의 이론가보다는 실무경험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건축사가 주체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미 1995년부터 국내건축사와 함께하는 외국건축사의 영업행위와 작품 활동을 인정하였고, WTO의 규정에 의해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허안 작업을 건교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의 기본원칙이 투명성, 동등성 등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고, 향후 많은 나라와의 FTA협정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의 주장과 제안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제 많은 개선책 중 이 문제도 반드시 뿌리 채 개선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만의 것이 아니고 미국의 상징이 되었으며, 캄보디아는 앙코르왓트 사원을 자국의 국기에 담았다. 캥거루로 표현되던 호주는 이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그 이미지를 바꿔 버렸다.

선진국의 경우 인프라 성격이 강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입찰을 하지만 예술성격이 강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된 건축물은 문화 이벤트 성격으로 현상설계로써 운용하고 있다.

이제 서울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를 현상설계하기 전에 하루 속히 건축설계경기 및 발주제도를 본 협회의 안대로 바꾸어야한다. 그리하여 젊고 유능한 건축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어야 하며, 그 속에서 행정도시의 관공서나 각 지방에 산재할 공기업 청사는 물론 오페라하우스도 시드니나 코펜하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탄생하여 유명해짐으로써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건축을 우리들의 손으로 탄생시켜야 한다. 이는 시대의 소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다. ㄷ